

여고생의 흡연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흡연지식, 흡연태도, 건강행위를 중심으로-

이계은\* 김 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건강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교육과)

목 차

I. 서론	I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I. 서론

1. 문제제기

흡연이 여러질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알려지면서 그 유해성을 확증한 많은 연구와 공중매체를 통한 교육, 그리고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흡연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담배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남자 성인 흡연률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나라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의 대다수는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며 청소년 흡연자의 급증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남자고등학생의 흡연율은 65%를 넘고있으며(조상문, 1973; 임태빈, 1976; 서일의, 1988) 20세가 넘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80%의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이영숙, 1982).

여자고등학생의 경우는 흡연경험을 12.9%(심은희, 1988), 14.9%(고막래, 1990)로 남학생 흡연율 65%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의 경우도 전반적인 흡연율 감소와는 반대로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Nubel, Solomon, 1988)

또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개의 연구에서도 흡연경험을 22.5%(이수경, 1987), 28.6%(송미숙, 1987)로서 우리나라 여성 흡연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이것은 여성이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실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여고생의 흡연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여고생들의 건강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흡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강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고생의 흡연율과 흡연실태를 파악한다.
- 2)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의 지식, 태도에 파악한다.
- 3) 흡연여부에 다른 건강행위를 파악한다.
- 4) 여고생 흡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는 여자고등학교 중 인문계 주·야간 고등학교, 실업계 주·야간 고등학교 별로 임의로 선정하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 기록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992년 2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1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153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1136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1136명의 학교 계열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학교 계열별 대상자 분포

	조사학급수	조사수(N)	백분율(%)
인문계 주간	5 학급	263	23.2
인문계 야간	5 학급	238	20.9
실업계 주간	5 학급	252	22.2
실업계 야간	5 학급	383	33.2
계	22 학급	1136	100.0

### 2. 연구도구

본연구는 연구자가 기존의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에 설문지는 1. 개인적 특성 및 가정환경, 2. 흡연실태, 3. 흡연지식, 4. 흡연태도, 5. 예방적 건강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총 6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조사 대상자의 흡연여부와 흡연실태를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지식과, 흡연태도, 건강증진행위의 관련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X^2$ -test로 분석하여 Contingency Coefficient 구하였다.

3. 흡연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흡연율

본 연구 대상자중 현재 흡연자는 176명(15.5%), 흡연 경험자는 204명(18.0%)으로 흡연자를 포함한 흡연 경험자는 23.5%로 표 2과 같다.

표 2. 흡연경험 여부의 분포

	조사수(N)	백분율(%)
흡연군	176	15.5
흡연경험군	204	18.0
비흡연군	756	66.5
계	1136	100.0

흡연군	15.5%
흡연경험군	18.0%
비흡연군	66.5%

그림 1. 흡연경험여부

###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흡연여부

#### 1) 학교 유형별 흡연율

본 연구 대상자의 학교별 흡연여부는 표 3과 같다. 인문계 주간 고등학교는 흡연군 2.7%, 흡연 경험군 9.9%, 인문계 야간 고등학교는 흡연군 19.5%, 흡연 경험군 18.1%, 실업계 주간 고등학교는 흡연군 10.3%, 흡연 경험군 15.1%, 실업계 야간 고등학교는 흡연군 25.5%, 흡연 경험군 25.3%로서 주간 고등학교보다 야간 고등학교가 흡연율이 높았고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흡연율이 유의하게 높았다(그림 2).

표 3. 학교유형에 따른 흡연율 N(%)

학교유형	흡연군	흡연 경험군	비 흡연군	계
인문계 주간	7(2.7)	26(9.9)	230(87.4)	263
인문계 야간	46(19.5)	43(18.1)	149(62.6)	238
실업계 주간	26(10.3)	38(15.1)	188(74.6)	252
실업계 야간	97(25.5)	97(25.3)	189(49.4)	383
	$X^2=136.703^{***}$		C=0.328	

	흡연자 흡연경험자		비흡연자
인문계 주간	27	9.9	87.4
인문계 야간	19.5	18.1	62.6
실업계 주간	10.3	15.1	74.6
실업계 야간	25.5	25.3	49.4

그림 2. 학교유형별 흡연율

2) 학교생활 만족도와 한달용돈에 따른 흡연여부  
학교생활 만족도와 한달용돈에 따른 흡연여부는 표 4와 같다.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흡연율과 흡연 경험율이 높았고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경험율이 높아 큰 차를 보였다.

표 4. 학교생활만족도와 한달용돈에 따른 흡연여부

	흡연군	흡연 경험군	비 흡연군	계
<b>학교생활 만족도</b>				
만족한다	19(7.7)	33(13.4)	195(78.9)	247
그러그렇다	110(15.6)	122(17.4)	471(67.0)	703
만족하지못하다	46(25.8)	49(27.5)	83(46.1)	178
	$X^2=50.394^{***}$		C=0.207	
<b>한 달 용 돈</b>				
1만원 미만	11(8.3)	12(9.1)	109(82.6)	132
1-2만원 미만	32(9.5)	53(15.7)	252(74.8)	337
2-3만원 미만	43(15.5)	51(18.4)	183(66.1)	227
3-4만원 미만	30(17.4)	39(22.7)	103(59.9)	172
4-5만원 미만	24(20.5)	29(24.8)	64(54.7)	117
5만원 미만	36(41.4)	18(20.7)	33(37.9)	87
	$X^2=86.647^{***}$		C=0.268	

3) 부모, 형제, 친구의 영향에 따른 흡연여부

남자 친구가 있는 학생이 흡연율과 흡연 경험율이 높았으며 또한 그 남자 친구가 흡연을 할 때 흡연율과 흡연경험율이 매우 높았다. 또한 여자 친구중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 흡연율과 흡연 경험율이 높아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흡연율과 흡연

경험율은 낮아 유의한 차를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과 흡연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어머니 직업유무도 학생의 흡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흡연에 있어서도 언니가 흡연을 하는 학생은 흡연율 46.5%, 흡연 경험율 18.6%로 언니가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은 흡연율 12.8%, 흡연 경험율 17.2%로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고 오빠가 흡연을 하는 학생의 흡연율 22.7%, 흡연 경험율 17.2%는 오빠가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의 흡연율 10.0%, 흡연 경험율 17.1%보다 높았다. 이는 형제가 흡연을 할수록 흡연학생군이 비흡연학생군에 비해 많았다.

3.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지식

1)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흡연의 일반적인 해로움에 대하여 흡연군과 흡연 경험군에 비하여 비흡연군이 인체에 매우 해롭다고 알고 있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를 보였다. 임신부 흡연의 해로움에 대하여 매우 해롭다고 알고 있는 학생중 13.9%가 흡연군이었고 전혀 해롭지 않다고 알고 있는 학생중 42.9%가 흡연군인 것으로 나타나 흡연군 일수록 임신부흡연의 해로움을 경시하고 있었다.

표 5.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

	흡연군	흡연 경험군	비 흡연군	계
<b>간접적인 영향</b>				
매우 해롭다	77(9.6)	132(16.5)	591(73.3)	800
약간 해롭다	68(28.1)	8(16.7)	30(62.5)	242
잘 모르겠다	28(35.0)	15(18.8)	37(46.3)	80
별로 해롭지않다	1(20.0)	2(40.0)	2(40.0)	5
전혀 해롭지않다	2(50.0)	1(25.0)	1(25.0)	4
	$X^2=93.553^{***}$		C=0.276	
<b>흡연시 이로움점</b>				
많다	8(22.9)	7(20.0)	20(57.1)	35
약간많다	18(25.7)	16(22.9)	36(51.4)	70
모르겠다	31(12.3)	57(22.5)	165(65.2)	253
잊점없다	80(29.5)	59(21.8)	132(48.7)	271
전혀잊점없다	39(7.8)	64(12.8)	387(79.4)	500
	$X^2=102.694^{***}$		C=0.289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서도 매우 해롭다고 답한 학생의 73.9%가 비흡연군이었고 9.6%가 비흡연군이었는데 반해 전혀 해롭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25.0%가 비흡연군이었고 50.5%가 흡연군으로 나타나 비흡연군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흡연의 이로움에 대하여 흡연군과 흡연경험군 일수록 잇점이 많다고 알고 있었고 비흡연군은 잇점이 없다고 대답해 매우 유의한 차를 나타내고 있었다.

## 2. 흡연과 관련된 건강문제

흡연하면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 학생중 흡연군은 13.4%이었고 흡연과 심장질환은 관계가 없다고 답한 학생중 흡연군은 16.6%이며 흡연경험군은 각각 14.6%, 19.6%로서 약간의 차를 보였다.

폐암에 대하여는 전체 학생중 흡연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92.9%로서 대부분의 학생이 폐암과 흡연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흡연시 긴장해소가 된다고 대답한 학생은 흡연군과 흡연경험군 일수록 많아 비흡연군과 큰 차를 보였다.

임산부 흡연이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부족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학생은 비흡연군이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에 비하여 많았다.

흡연이 인체 해롭다는 것은 비흡연군이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에 비하여 더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었으나 흡연시 구체적인 건강문제에 대하여는 세집단 모두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태도

대상자중 흡연군과 흡연경험군 일수록 일반적인 남녀흡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비흡연군 일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성흡연에 대하여 매우 좋아 보인다 0.6%, 절대 피우면 안된다 37.6%로 남성 흡연에 대한 태도의 매우 좋아보인다 0.8%, 절대 피우면 안된다 9.6%와 비교하여 여성흡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하여도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에 비하여 비흡연군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전체 학생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50.0%, 절대 피우면 안된다 19.3%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흡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6.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태도

	흡연군	흡연경험군	비 흡연군	계
<b>일반적 여성흡연</b>				
매우 긍정	2(28.6)	4(57.1)	1(14.3)	7
긍 정	6(42.9)	3(21.4)	5(35.7)	14
보 통	113(43.8)	56(21.7)	89(34.5)	258
부 정	43( 8.7)	99(20.0)	354(71.4)	496
매우 부정	12( 3.4)	41(11.5)	305(85.2)	358
	$X^2=272.246^{***}$		C=0.440	
<b>영화나 T.V에서의 흡연장면</b>				
매우 긍정	23(33.8)	12( 5.9)	33(48.5)	68
긍 정	34(17.4)	45(23.1)	116(59.5)	195
보 통	107(18.0)	108(18.2)	380(63.9)	595
부 정	10( 5.5)	29(15.8)	144(78.7)	183
매우 부정	2( 2.1)	10(10.5)	83(87.4)	95
	$X^2=62.324^{***}$		C=0.228	
<b>금연교육에 대한태도</b>				
매우 필요	11(28.2)	10(25.6)	18(46.2)	39
약간 필요	26(40.0)	15(23.1)	24(36.9)	65
모르겠다	39(31.2)	10(25.6)	18(46.2)	125
불 필요	57(21.5)	53(20.0)	155(58.5)	265
전혀 불필요	43( 6.7)	98(15.3)	501(78.0)	642
	$X^2=128.183^{***}$		C=0.318	

영화나 T.V드라마 등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흡연장면에 대하여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일수록 멋있어 보인다고 했고 비흡연군일수록 안좋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체 학생중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은 %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대중매체의 흡연장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금연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흡연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28.2%, 전혀 필요없다는 6.7%였고 비흡연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46.2%, 전혀 필요없다는 78.0%로서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이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 5. 흡연여부에 따른 건강행위

흡연여부에 따른 일반적인 건강행위 이행 정도는 표 7과 같다.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에 비하여 비흡연군이 건강증진

에 대한 책이나 잡지를 많이 읽는 것으로 상당히 유의한 차를 보였고 평상시 자신의 혈압과 맥박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학생 역시 흡연군 보다 비흡연군이 많았다. 또한 비흡연군은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에 비하여 영양섭취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음식을 섭취하는 학생이 많았고 포장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설명서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입하는 학생이 많아 유의한 차를 보였다. 이는 비흡연군이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루에 세끼 식사를 하면 특히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흡연군과 흡연경험군 보다 비흡연이 많았다. 하루 세끼 식사를 항상 한다는 학생중 흡연군은 6.1% 이었고 거의 매일 식사를 거른다는 학생중에는 흡연군이 27.4% 이었다. 반대로 할 세끼식사를 항상 한다는 학생중 비흡연군은 81.2% 이었고 거의 매일 식사를 거른다는 학생중에는 비흡연군은 52.2%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또한 흡연군일수록 음식을 짜고 맵게 먹으며 비흡연군일수록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먹는다고 대답해 비흡연군이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에 비하여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표 7. 흡연여부에 따른 건강행위 이행정도

	N(%)			
	흡연군	흡연경험군	비 흡연군	계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				
항상한다	30(9.8)	43(14.1)	233(76.1)	306

표 8. 흡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요 인	개인적특성이 미치는 영향 Beta (b)	부모, 형제, 친구가 미치는 영향 Beta (b)	흡연지식, 태도 건강행위의 영향 Beta (b)
학 교 생 활 만 족 도	-0.120(-0.279)	-0.119(-0.275)	-0.097(-0.226)
한 달 용 돈	0.267( 0.242)	0.194( 0.177)	0.113( 0.103)
부 모 의 관 심 도		0.078( 0.134)	0.014( 0.024)
여 자 친 구 흡 연 여 부		0.297( 0.777)	0.142( 0.370)
부 모 와 형 제 의 흡 연		0.153( 0.265)	0.099( 0.173)
흡 연 지 식			-0.080(-0.040)
흡 연 태 도			0.425( 0.087)
건 강 행 위			-0.030(-0.008)
R <sup>2</sup>	0.089	0.227	0.392

자주한다	12( 7.7)	28(18.1)	115(74.2)	155
가끔한다	86(18.2)	90(19.0)	297(62.8)	473
전혀안한다	48(24.6)	42(21.5)	105(53.8)	195
	X <sup>2</sup> =40.555***		C=0.186	

하루에 세끼식사를 한다

항상한다	15( 6.1)	31(12.7)	199(81.20)	245
자주한다	23(11.1)	31(25.0)	153(73.9)	207
가끔한다	95(18.5)	106(20.7)	312(60.80)	513
전혀안한다	43(27.4)	32(20.4)	82(52.2)	157
	X <sup>2</sup> =57.890***		C=0.222	

포장된 식품은 유통기한이나 설명서를 보고 구입한다

항상한다	73(12.3)	19(15.3)	430(72.4)	594
자주한다	41(15.8)	48(18.5)	181(65.8)	260
가끔한다	48(21.7)	51(23.1)	122(55.2)	221
전혀안한다	14(25.0)	13(23.2)	29(51.8)	56
	X <sup>2</sup> =28.299***		C=0.156	

6. 흡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X<sup>2</sup>-test 결과 흡연군, 흡연경험군, 비흡연군 간에 유의한 차가 큰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변수들은 크게 첫째, 개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둘째,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구가 미치는 영향, 셋째, 흡연 지식과 흡연태도 그리고 건강행위가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여고생의 흡연여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흡연태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한달용돈, 부모와 형제의 흡연여부가 순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흡연여부를 8.9% 설명할 수 있고 부모, 형제, 친구의 행위를 첨가시키면 흡연여부의 22.7%를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흡연지식, 흡연태도, 건강행위이행 정도를 첨가시키면 흡연여부의 39.2%가 설명 가능하였다.

이 결과는 건강교육자가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와 형제 친구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흡연지식, 흡연태도, 건강행위를 올바르게 교육시킴으로 흡연과 개인적인 환경의 관련성이 감소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교육을 통하여 여고생흡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2년 2월 6일 부터 2월 22일 까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여자고등학교의 학생 1136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본 연구 대상자 1136명 중 흡연군은 176명으로 15.5%였고 흡연경험군은 204명으로 18.0%였다.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은 23.5%였고 흡연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은 66.5%였다.

2. 흡연군과 흡연경험군 중 최초 흡연시기는 중학교 3학년이 흡연군이 36.9%(65명), 흡연경험군 37.3%(75명)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군은 70.5%(124명)이 금연의사가 있었으며 금연이유는 건강이 65.6%(75명)으로 가장 많았다.

3. 학교 유형별 흡연율은 인문계 주간이 흡연율 2.7%(7명), 흡연경험율 9.9%(26명)로 가장 낮았고 실업계 야간이 흡연율 25.3%(97명), 흡연경험율 25.3%(97명)로 가장 높았다.

4.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은 비흡연군에 비하여 한달 용돈이 많았고( $P < 0.001$ ) 학교생활에 불만족하였으며( $P < 0.001$ ) 학교성적이 좋지 못하였다( $P < 0.001$ ).

5.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은 비흡연군에 보다 남자친구가 많았고( $P < 0.001$ ) 그 남자친구가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 $P < 0.001$ ) 흡연하는 여자친구도 많았다( $P < 0.001$ ).

6.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은 비흡연군에 비하여 부모의 관심이 부족하였다( $P < 0.001$ ). 그러나 엄하거나 자유로운 양육태도는 세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7.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은 비흡연군보다 부모와 형제가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언니흡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8.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은 비흡연군에 보다 흡연의 해로움을 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었으며 흡연과 관계된 건강 문제 중 긴장해소가 된다고 알고 있는 학생은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이 비흡연군보다 많았고( $P < 0.001$ ) 임신부 흡연시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부족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학생은 비흡연군이 많았다( $P < 0.001$ ).

9.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은 비흡연군보다 흡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특히 여자 친구 흡연과 남자 친구흡연에 대하여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일수록 찬성하는 학생이 많았다( $P < 0.001$ ).

10.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은 비흡연군 보다 건강행위가 부족하였다.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은 식습관으로 흡연군과 흡연경험군일수록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 $P < 0.001$ ),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 $P < 0.001$ ), 음식은 천천히 먹는다( $P < 0.001$ )의 항목에서 큰 차를 보였다.

11. 대상자의 흡연여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흡연태도이며 한달 용돈, 부모와 형제의 흡연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대상자의 개인특성은 흡연여부의 7.7%를 설명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 친구의 영향을 포함시키면 12.6%를 설명할 수 있으며 흡연학생의 흡연지식, 흡연태도, 건강행위를 포함시키면 39.4%를 설명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고막래(1990), "남녀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지식, 인식 및 행동에 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고흥경(1990), "서울 시내 일부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보건교육학회지, 7(1).

3. 김 명 등(1990), “중고등학생의 담배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학회지 6(2).
4. 박상문(1984), “자궁암검진 이행자와 비이행자간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박선섭(1989), “흡연자 건강관리” 보건교육학회지, 6(2).
6. 박종구(1988), “우리나라에서 흡연 연구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 의학회지, 10(2).
7. 박종구 등(1989), “흡연의 경제적 손실분석”, 예방 의학회지, 22(4).
8. 송미숙(1987), “여대생에 있어서 흡연양상과 흡연이 영양섭취 및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서 일(1988), “한국인의 흡연율과 그 역학적 특성”, 한국 의학회지, 10(2).
10. 서 일 등(1988), “전국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실태”, 한국 의학회지, 10(2).
11. 심은희(1988), “서울특별시 여고생의 흡연실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윤 진(1990),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 행위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성옥(1985), “흡연자의 건강신념과 흡연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수경(1986), “일부 여대생의 흡연실태와 그에 따른 요인분석”, 여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이승환(1988), “서울 시내 남자고등학생들의 흡연 행태 및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이영숙(1982), “서울시내 일부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해숙 등(1989), “전국 남자 중·고등학생들의 2년간의 흡연력 비교”, 한국 의학회지, 11(2).
18. 임재은(1984), “건강의식이 건강행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임숙희(1984), “예방적인 건강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간염예방접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정해용(1988), “고교생의 생활환경에 따른 흡연실태와 그 지도고찰에 관한 연구 -마산시내 남자고교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조수현(1987), “여성과 흡연”, 대한의학협회지, 30(8).
22. 정규철(1980),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방 의학회지, 13
23. 정해용(1988), “고교생들의 생활환경에 따른 흡연 실태와 그 지도고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지인순(1989), “중학생의 흡연수용태도 결정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Aronow, W. S.(1987), “Effect of passive smoking on angina pectoris”, New Engl. J. Med., 299, p. 21.
26. Doll, R. Hill, A. B. (1964), “Mortality in Relation to smoking”, Ten year' observation of British Doctors. Birt. Med. J. Vol. 1, p. 1399.
27. Lader, M. (1987), “Nicotine and smoking behavior”, Br. J. Clinpharmacol. Vol. 5, p. 289.
28. Murphy, J. F., Drumm, J. E., Mulcahy, R., Daly, L. (1980), “The Effect of Maternal Smoking on Fetal Birth Weight and on Growth of fetal Biparietal Diameter”, Br. J. Obstet. Gynecol., 67, p. 462.
29. Murphy, J. E., Mulcahy, R. (1978), “Cigarette smoking and Spontaneous Abortion”, Br. Med. J. Vol. 1, p. 988.
30. Notelovitz, M., Levenson, I., McKenzie, L., Lane, D., Kitchens, C. S. (1985). “The Effect of Low-Dose Oral Contraceptives on Coagulation and Fibrinolysis in Two High-Risk Populations : Young Female Smokers and Older Premenopausal Women”, Am. J. Obstet. Gynecol., 152, p. 995.
31. Pender, N. J. (1982),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32. Steven, P. S., Lewayne, D. G. (1986), “Preventing tobacco use among young people”, Health and Social Work, 11(1) : p. 59.
33. Wall, M., et al(1984), “Health effects of smoking on children”, America Thoracic society, Vol. 11, p. 1137.

<Abstract>

## A Study of the Smoking of high school girls and its factor

Gey on Lee, Myung Kim

(Dept. of Healt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surveyed among 1136 respondent of high school girls in seoul from Feb. 6, till Feb. 22, 1992 for the purpose of analysing the smoking of high school girls and its factor.

The data was analied by X<sup>2</sup>-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d shows the following.

1. Out of 1,136 respondent, the current smokers were found to be 176, 15.5% and the former smokers were 204, 18.0%. This implies that 23.5% of high school girls seoul have experience smoking.

2. For the first smoking time in both smoking group and former smokers, it shows that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lead the lists. 36.9% (65) of the smokers and 37.3(75)of former smokers experienced the first smoking at that time. 70.5% (124) of the smoking group have the intention to stop smoking and the first reason of it is health problem, 65.6% (75).

3. For the type of the school the smoking rate rages from 2.7% (7) of literary part in day time to 25.3% (97) of vocational part in evening time and the rate of smoking experience shows from 9.9% (26) literary part in day time to 25.3% (97) of vocational part in evening time. This data show that literary part in day time has the lowst rate while vocational part in eveing time the highest rate.

4. Compared with non smoker group, smoking group and former smoking group spent more money ( $P < 0.001$ ) and felt dissatisfied with school life and didn't have good school records.

5. Smoking group and former smokers have more boy friends than non smoking group and in most cases their boy friend have smoking habits ( $P < 0.001$ ) and it is the same with their gril friend ( $P < 0.001$ ).

6. Compared with non smoker group, smoking group and former smokers lack of their parents' interest ( $P < 0.001$ ). But whether it is strict or free there is little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

7. For smoking group and former smoking group, in most cases their parent, brother and sister tend to smoke and especially their sisters' smoking has much influence on their smoking in comparison with non-smokers.

8. Compared with non-smoker group, smoking group and former smoking group tend to think less of the harm of smoking. In regard with health problem, more smoking group and former smokers think that smoking can relieve the stress ( $P < 0.001$ ), and more non-smokers know that when a pregnant woman smokes, it can cause the lack of supply of Oxygen( $P < 0.01$ ).

9. Smoking group and former smoking group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smoking than non-smokers and tend to agree to their boy and girl friends' smoking( $P < 0.001$ ).

10. Compared with non-smoker group, smokers and former smokers do less exercises for health. One of the greatest differences between them is the eating habit and shows the low response in the item—have breakfast every morning, Have a meal threetime a day, Eat food slowly.

11. In regard with the possibility of smoking of respondents, the factors of smoking are found as following.

(1) Smoking attitude. (2) Money spent a month. (3) parents' and brother and sisters' smoking habit.

12. The possibility of smoking can explained to 8.9% individual characters, to 22.7% including the influence from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and friends, and to 39.2% including the smoking knowledge, smoking habits, health exercises of the smokers.